

## [ 경제 ]

# 학력간 임금격차 갈수록 커진다

올 평균 소득 대졸 354만원·고졸 236만원

2003년 1.42배에서 올 1.50배 차이로 확대

대학교 졸업자의 임금이 초·중·고교 졸업자에 비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력간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중 대졸학력을 갖고 있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54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326만1천원에 비해 8.6% 늘어났다.

반면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113만6천원에서 122만3천

원으로 7.7% 증가해 대졸자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고, 중학교 졸업 가구주는 올해 3·4분기 월평균 140만8천원의 근로소득을 올려 지난해 3·4분기 136만7천원에 비해 3%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4분기 216만7천원에서 올해 3·4분기에는 236만1천원으로 9% 증가하면서 대졸자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대졸자의 근로소득은 각각 고졸의 1.5배, 중졸의 2.52배, 초졸

의 2.9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기준으로 대졸~고졸 임금격차는 2003년 1.42배, 2004년 1.45배, 2005년 1.44배, 2006년 1.51배, 2007년 1.50배 등 전반적 상승 추세를 보여 왔고, 대졸~중졸 임금격차 역시 2003년 2.01배, 2004년 2.07배, 2005년 2.20배, 2006년 2.39배에 이어 2007년에는 2.52배로 확대됐다. 대졸~초졸 임금격차는 2003년 2.57배에서 2004년 2.55배, 2005년 2.64배, 2006년 2.87배, 2007년 2.90배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대졸자의 임금이 초·중·고교 졸업자에 비해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3·4분기 기준으로 올해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년 전인



**KOSPI**  
**1,855.33**  
**(+82.45)**

사상 두번째 급등  
사이드카 발동

미국발 훈풍에 급반등… 코스닥도 20.73P↑

코스피지수가 사상 두번째 상승폭을

기록하며 급반등에 성공했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주말보다 82.45포인트(4.65%) 오른 1,855.33에 마감됐다. 이날 지수 상승폭은 지난 8월 20일의 최대 기록(93.20포인트) 이후 두번째로 크다.

코스피 200 지수선물이 5% 이상 급등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사이드카가 오후 1시 18분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20.73포인트(2.96%) 상승 721.41로 장을 마쳤다.

국내 시장은 지난 주말 뉴욕시장 강세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

입어 개장 초부터 강한 상승세로 출발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 8시 45분에 급반등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서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추세반전 성공 여부는 향후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최근 1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서 일단 단·중기 추세가 깨지기는 했지만 이번 반등으로 1,800선을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낙폭이 커졌던 기준 주도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120일선이 위치한 1,900부근까지 반등이 이어지겠지만 낙폭과 대비로 따른 기술적 반등 측면이 강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기는 다소 이르다”고 조언했다.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1,800선이 지켜지면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 일단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불안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바닥 다틱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직업별 소득 순위

(단위: 만원)

순위	전체 취업자		임금 근로자	
	직업명	월소득	직업명	월소득
1	변호사	849.4	변호사	723.7
2	항공기 조종사	689.5	항공기 조종사	689.5
3	금융·보험 관리자	598.8	자연·사회과학 연구관리직	612.5
4	자연·사회과학 연구관리직	579.0	금융 및 보험 관련 관리자	604.7
5	경영지원 관리자	574.2	보험대리인 및 보험증개인	586.0
6	기업 고위임원/고위공무원 및 공공 단체임원	548.6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553.2
7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	546.8	기업 고위임원/고위공무원 및 공공 단체임원	540.4
8	투자 및 신용분석가	539.9	경영지원 관리자	540.3
9	회계사	529.1	투자 및 신용분석가	531.6
10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528.8	기타 회계 및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490.8
11	한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	526.0	금융자산운용가	470.0
12	생산관련 관리자	500.8	회계사	467.1
13	치과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	491.4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458.9
14	기타 회계 및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49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444.1
15	판매관련 관리자	476.2	의사	436.0
16	금융자산운용가	469.4	판/검사	433.3
17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458.7	영화, 연극 및 방송 기술 감독	431.3
18	영화, 연극 및 방송 기술 감독	436.0	경영지도/진단전문가 (경영컨설턴트)	429.4
19	경영지도/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435.6	생산관련 관리자	427.8
20	판/검사	433.3	한의사	422.5
	취업자 전체	191.3	임금근로자 전체	188.0
	※전체취업자 소득은 수습·인턴·레지던트·검사보 등과 같은 견습과정도 포함되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취업자 월 평균 소득 191만원

### 변호사 850만원 최고

서 2006년 199만9천원으로 월평균소득이 31.9%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165만4천원에서 188만원으로 13.7%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호사(849만4천원)였고 이어 항공기 조종사(689만5천원), 금융 및 보험 관련 관리자(598.8만원),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 관리직(579.0만원), 경영지원 관리자(574.2만원) 등이었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변호사(723.7만원), 항공기 조종사(689.5만원),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관리직(612.5만원), 금융 및 보험 관련 관리자(604.7만원), 보험대리인 및 보험증개인(586.0만원) 등이었다.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43세였고 직업별로는 고속작물재배자(63.8세), 채소·특용작물재배자(62.8세), 원양어부·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61.6세) 등 농어촌 관련 취업자가 1~3위를 차지해 갈수록 삶각하고 있는 농어촌 사회의 고령화를 엿볼 수 있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2002년 151만5천원에

달성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부 기업에 비해 공공기관들이 ‘왕 끊고 해업자’식 목표를 내걸고 성과급만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26일,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37개 공공기관 직원 2천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한 ‘공공기관 성과평가 인식조사’ 응답보고서를 최근 기획 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직수준의 성과지표에 대해 물었더니 ‘매우 달성하기 쉽다’ 9.6%, ‘대체로 달성하기 쉽다’ 56.2%, ‘보통이다’ 30.4%, ‘달성하기 어렵다’ 3.4%,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 0.5% 등의 비율로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의 65.8%가 달성하기 쉽다고 밝혔고 달성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3.9%에 그친 것이다.

### 공기업 직원 7~9년차 되면 ‘방황’

반복되는 업무에 회의감… 10년차부터 총성도↑

공기업 직원들은 입사 7~9년이 되면 방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에 회의의 느끼고 다른 직장과 직종에 눈을 돌리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연령대를 넘어서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급격히 떨어간다. 무엇보다도 선역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공기업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의 직원 2천55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성과평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사한지 7~9년된 사원이 상대적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고 심리상태가 복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성원들의 조직 애착 수준에 대해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등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더니 7~9년된 사원의 답변 가운데 ‘매우 그러함’은 10.4%로 1~3년 13.4%, 4~6년 12.1%, 10~15년 14.7%, 15년 이상 22.1%에 비해 가장 낮았다.



LG전자는 기존 4배속의 블루레이 플레이어 제품보다 30% 이상 빠른 6배속의 재생속도를 지원하는 블루레이·HD DVD 플레이어 '슈퍼멀티블루 드라이브'를 26일 국내 최초로 출시한 가운데 한 모델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

### “경제 규제 완화·양극화 해소 급하다”

#### 경제전문가들 해결과제 꼽아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제 완화와 양극화 해소 등을 우선 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현재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의견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63.3%)와 ‘과감한 투자 유인책’(44.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의견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63.3%)과 ‘금융규제 완화’(48.5%)를 꼽았다.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61.7%)를 원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47.4%)에 역점을 둘었다.

이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과 ‘고용불안 해소’(11.2%), ‘FTA 확대 등 개방화·국제화’(10.8%), ‘부동산 시장 안정’(9.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발전을 위한 역점 과제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63.3%)와 ‘과감한 투자 유인책’(44.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화하자 다시 예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슬립하며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행’에 대

## 책값 포인트 제공 한도 10%로 축소

### 공정위, 내년부터… 백화점 경품 자격 제한하면 규제

현재 도서구입시 5천원 미만까지 제 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의 경품제공한도가 내년부터는 책값의 10%인 1천~2천원선으로 축소된다.

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공개현 상경품 행사를 벌일 때 제품구입 영